

“반도체 대기업은 메가 특혜, 소부장 노동자는 메가 탄압”

금속노조, 교섭 회피 사업주 특별근로감독·엄벌 촉구

금속노조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사업장의 노조 탄압과 교섭 파행을 고발하고, 정부에 사업주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 엄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노동기본권 말살 규탄,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정부가 정작 산업을 지탱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48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리노공업에서는 노조 설립 이후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7월부터 두 달 넘게 전면파업을 벌였고,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중재로 네 차

레 밤샘 특별교섭이 열렸다. 일부 조항은 서명까지 갔지만 회사가 합의 직전 인사 관련 조항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교섭이 무산됐다.

김승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리노공업지회장은 “회사는 특별교섭에서 논의한 내용을 백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단체교섭에서는 노동부 특별교섭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김지회장은 “정부기관의 중재 아래 밤을 새워 진행한 교섭마저 사실상 부정하는 이러한 태도는 노사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노동부와 국회가 무산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리노공업이 책임 있게 교섭에 임하도록 나서라고 압박했다.

하나머티리얼즈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충남 천안·아산에서 반도체 식각 공정용 부품을 만드는 이 사업장은 임금과 단체협약 핵심 사항을 ‘교섭 대상 아님’이라며 교섭 테이블에서 빼려 하고,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아 야만 교섭에 응하겠다고 노조에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반도체 핵심 부품 제조기업 티씨케이에는 3조 2교대로 365일 공장을 돌린다. 이

정곤 금속노조 경기지부 티씨케이지회장은 불과 3년 전까지 강제 휴직과 불합리한 전배, 일방적인 성과급 결정이 이어졌다면 기업이 성장해도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환경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공장이 24시간 가동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삶까지 언제나 생산에 맞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고, 투자 규모와 생산 실적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의 건강·휴식권을 정책 목표로 삼으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은 보세구역·국가전략산업이라는 이유로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돼 사진도 녹음도 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이 방치되고 부당 지시가 내려져도 입증할 증거 하나 남길 수 없다”고 폭로했다. 근로감독관은 24시간 전에 출입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어 감독이 무력화되어 있으며, “취급하는 유해물질 자료(MSDS)를 4년 동안 요구해도 회시는 주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앰코에서는 지난 2년간 2,088명이 공장을 떠났지만 회사가 채용한 인원은 995명에 그쳤다. 이

지회장은 “절반도 안 되는 인원으로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다 보니 신입사원조차 버티지 못하고 다시 퇴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는 결코 지역을 살릴 수 없다”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들 사업주에게 특별근로감독과 국정감사 소환, 부당노동행위 엄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자회견문에서는 “반도체산업이라고 특별하게 치외법권일 수 없다”며, 대기업과 자본에는 메가 특혜를 주고 소부장·하청 노동자에게는 메가 탄압을 하는 현실을 수수방관한다면 “노동인권을 방치하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정부로 전락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자본에 면죄부와 특혜만 쥐여주는 반헌법적 교섭 대상 예외 시행 지침과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위한 종합 대책이라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1시 국회 제5간담회실에서 반도체 소부장 사업장 노동 실태 증언대회를 연다.